

연구총서 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 규 루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지역에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치와 경제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들을 정리해서 살펴본 바탕위에, 거시적 지표들을 위주로 북한의 국가 위험도 측정을 위한 모델설정에 필요한 각종 변수를 추출하는 일차적 분석을 하였다. 한편, 북한은 독특한 경제 및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이성과 일반성 두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1. 국가위험도 측정방법 및 변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점검표 접근법과 객관화 접근법으로 대별되며, 두가지 접근법은 대상국가의 성격 및 측정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안점인 국가적 위험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되고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적 방식을 사용하는 절충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이는 숫자의 신뢰력과 문자의 설득력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위험도 측정에서도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위험도 측정의 대상을 광의로 해석하면 대상국가의 전반적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변수들을 추출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가위험도 측정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상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통상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된 경제지표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주된 목적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경제지표를 통한 대상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위험도 측정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위험도와 관련한 정치적 변수는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대상국가의 상황 및 다국적기업의 진출 희망분야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도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국적기업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경제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국가의 채무변제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적 변수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2. 북한특유 측정변수

북한과 관련한 특유의 변수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남북관계 진전상황, 동북아 경협 발전추세, 대외관계 개선추세, 북한 시장 선점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변화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 또는 악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

한의 국가위험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규정짓는 변수들은 남북경협 제도화, 남북연결 인프라구축, 전용공단 구체화 등으로서, 이들이 진전되는 경우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경협 관련 4대 합의서가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최근 남한과 북한간에는 경의선의 육로·철도 연결사업 및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로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성지역에 남한 전용공단을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투자환경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며, 국가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동북아경협 발전추세는 동북아지역의 무역자유화와 한·중·일간 경협 강화로 대표되며, 이들이 발전되는 것도 북한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남한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대중국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동북아지역은 냉전이후시대에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인해서 한·중·일간 무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역동성은 역내국가들간의 다자간 경제협력 구도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경협 강화는 북한의 투자환경에도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추세는 북·미 관계를 필두로 해서, 북·일 관계 및 북한과 국제금융기구간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본격적

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일본간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 지불은 북한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 기업들은 북한경제 현대화에 동참하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시장 선점효과는 북한당국이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방 및 개혁할 경우 강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적 요인은 역시 신규시장의 선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혁 및 개방조치를 취하게 되면, 외국기업들은 북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북한일반 측정변수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변수들은 권력안정 관련변수, 기업활동 보장변수, 대외경제 관계변수, 채무변제 관련변수로 대별되는 바,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 또는 악화될 것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들 정치적 요인을 대별하면, 권력의 안정과 불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들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가 제한하는가 하는 점을 측정하는 변수들로 나뉘어진다. 첫째, 권력안정 관련변수로는 정권교체 가능성, 정통성 위기발생 가능성, 사회적 무질서 양상, 군부의 불안정, 엘리트 영향력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된다. 즉, 다국적기업이 대상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문제가 대상국가의 권력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측정하는 변수가 상기

한 것들이다. 사실상 대상국가의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 보장변수로는 채무불이행 경험, 부패의 정도, 이데올로기, 인구분포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된다.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두 번째 사항은 대상국가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활동 보장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제반장치가 매우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 나름대로 시장경제의 장점을 받아들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일반적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경제적으로 요인을 고려하면, 대외경제관계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변수와 채무변제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나뉘어진다. 셋째, 대외경제관계 변수로서는 경제적 변수 중에서 경상수지, 수출구성비, 수입구성비가 해당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상국가의 수출이나 수입이 지나치게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국가의 경제는 일정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수입과 수출간 비중이 불균형한 현상도 대외경제관계를 의존적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채무변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는 부채비율 및 외환보유고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국도 외환위기 당시 지나친 외채 때문에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한 바 있으며, 북한도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적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4. 종합 측정모델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모델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투자요인을 중심으로 추출한 특유모델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이 두가지 모델은 하나의 점검표로 통합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가는 제시된 통합점검표를 각 변수의 변화를 추적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국가위험도는 일견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은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절대적 수치로 평가한 결과보다는 시계열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적 정치 및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점진적이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가 더 효과적인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은 국가위험도 측정 관련 일반변수와 북한특유 변수들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이며, 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북한의 국가위험도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예측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은 북한경제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위에서 제시된 통합된 모델을 바탕으로 협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목 차 -

I. 서론	1
II. 국가위험도 측정방법	4
1. 국가위험도의 정의	4
2. 점검표 접근법	6
3. 객관화 접근법	8
III. 국가위험도 측정관련 변수	10
1. 정치적 변수	10
2. 경제적 변수	24
3. 일반적 변수	26
4. 국가위험도 측정결과지표	28
IV. 대북한 적용변수 선정	33
1.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기준	33
2.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기준	40
V.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43
1. 북한특유 측정모델	44
2. 북한일반 측정모델	46
3. 종합모델	49
4. 평가 및 결론	50
참고문헌	54

I. 서론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부딪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주재국가의 국가적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적 위험도는 특히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후진국에 진출할 경우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국가에 대한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다국적기업들이 신규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판단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여타 선진국에 진출할 경우 해당국가의 세제 및 사회간접자본 실태 등 경제적 투자환경이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이 후진국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후진국 고유의 정치적 변동상황이나 문화적 상이성 등 유무형의 변수들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변수가 이익환수 및 투자재산보호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세습 및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국적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진출대상지역으로 상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실현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경우,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매력 있는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2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기업성장 및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업의 신규 시장 발굴의 기회로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기업들은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등 위험부담과 위험을 무릅쓰고도,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실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택을 염두에 두고 손익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지역에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환경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와 경제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본 연구는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들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위험도는 현재 경영학적 관점에서 대상국가의 전반적 경제상황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대상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위험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 신규시장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 대상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험도 관련 연구는 거시적 지표를 주로 사용해서 대상국가의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국가의 성격 또는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시적 지표까지를 포함한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의 국

가위험도 측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시적 지표들을 위주로 북한의 국가 위험도 측정을 위한 모델설정에 필요한 각종 변수를 추출하는 일차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은 독특한 경제 및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이성과 일반성 두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 관련 변수추출 및 모델설정에 있어서 분석가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의 특이성과 관련한 변수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일반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동시에 요망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국가위험도 측정방법

1. 국가위험도의 정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는 통상적으로 주권위험도(Sovereign Risk) 또는 정치위험도(Political Risk)와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통상적인 경제적 위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다국적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예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은 위협에 노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위험은 투자주체에게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위험도는 국가간 투자에 있어서 해당투자가 투자유치국 정부가 개입된 행위에 의해서 유발된 위협에 노출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해서 국가위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첫째, 국가위험도는 국경을 넘어선 투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위험도는 국내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국인들간 투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해외투자의 대상이 투자유치국의 정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단위가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대상들은 모두 국가위험도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위험도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기업의 도산 등 기업적 차원의 문제는 국가위험도 측정

1) Pancras J. Nagy, *Country Risk: How to assess, quantify and monitor it*, London: Pitman Press, 1979, p. 13-14, 참조.

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위협도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국가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위협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위험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첫째, 정치적 위험도를 광범위한 국가의 주권행사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수출입규제, 수용, 몰수 등 정부에 의한 간섭을 정치적 위험도로 간주한다. 즉, 정부의 간섭은 기본적으로 경제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를 정부의 행위와 관련된 변수에 국한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시각은 반정부 데모 및 게릴라전 등 정부의 직접적 정책과 무관한 행위와 국가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등 다국적기업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들은 정치적 위험도 관련 변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위험도를 특정 산업이나 기업차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규제나 정치적 사건 등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위로 정의하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도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치적 사건과 정부의 간섭 등의 변수를 포괄한다. 정치적 사건은 정권변화 및 데모 등이며, 정치적 규제는 수용, 국유화, 해외송금제한, 차별조세 등이다. 그러나 이 시각도 국가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정치적 위험도를 정치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연속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기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시

2) Janice Monti-Belkaoui and Ahmed Riahi-Belkaoui, *The Nature, Estimation, and Management of Political Risk*, Westport: Quorum Books, 1998, pp. 75-76, 참조.

각이다. 이 시각은 정치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변화가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치적 사건이 기업에 위험도로 작용하는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기업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정치적 위험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시각은 첫째 시각이 정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둘째 시각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행위를 변수로 간주하는데 더 하여, 정부의 행위든 정치적 불안정성이든 상관없이 기업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을 정치적 위험도 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위험도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부딪치는 주재국가에 의한 해당재산의 국유화 및 징발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물론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이와 같은 주재국가의 극단적인 형태의 적대적 행위보다는 기업 운용상의 불편함과 같은 통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이들도 정치적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국가위험도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다국적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 일차적 관심을 대상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국가위험도 측정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점검표 접근법

점검표 접근법은 상관지표들을 선택한 후 각각의 지표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즉, 대상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지표들의 기준치를 설정한 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후 각각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대상국가의 국가위협도를 산정하는 것이다.³⁾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에 있는 반면, 단점은 발표된 통계 및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실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은 과거의 추세를 미래에 투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양상이 과거와 다른 양태로 움직일 경우에는 적실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자가 가중치 산정에 있어서 최대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중치 산정 및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위협도 측정방법이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대상국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일정국가에 대한 국가위협도를 측정함에 있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성의 개입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위협도 측정이 여타 국가들과의 비교에 주안점이 있을 경우,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협도 측정이 특정 다국적기업의 진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상국가에 대한 식견이 탁월한 전문가들이 협조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검표를 설정할 때, 국가위협도 측정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변수의 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3) Nagy, *op. cit.*, p. 31.

3. 객관화 접근법

객관화 접근법은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등 경제통계가 일정한 예측력을 가지는 변수들이라는 가정 아래 경제통계학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각종 경제지표를 미래예측모형에 산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⁴⁾ 이 접근법은 이론 및 방법론상으로 매우 과학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상기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미래예측모형들은 과거의 추세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해서 모형을 설정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예측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의한 국가위험도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이 접근법은 국가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는데는 예측력 및 설명력이 탁월하나 사기업 부문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단점들은 경제통계학적 미래예측모형들이 틀렸거나 적실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접근법만으로는 국가위험도 측정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상의 두 가지 접근법을 대상국가의 성격 및 측정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주안점인 정치적 위험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되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적 방식을 사용하는 절충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숫자의 신뢰력과 문자의 설득력 사이에서

4) Nagy, *ibid.*, p. 32.

고민해야 하는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위협도 측정에서도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기본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라 하겠다.

Ⅲ. 국가위험도 측정관련 변수

국가위험도 측정의 대상을 광의로 해석하면 대상국가의 전반적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변수들을 추출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가위험도 측정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상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통상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된 경제지표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주된 목적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경제지표를 통한 대상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위험도 측정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가위험도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변수들과 이들이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변수 및 미시적 지표들을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치적 변수

국가위험도와 관련한 정치적 변수는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치적 변수가 주로 분석가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이 대상국가의 상황 및 다국적기업의 진출 희망분야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⁵⁾

5) David M. Raddock, *Assessing Corporate Political Risk: A Guide for*

1. 정권교체
2. 정통성
3. 사회변화 기대고조
4. 중산층 불만족
5. 채무불이행 경험
6. 부패
7. 이데올로기
8. 인구분포
9. 노동조합
10. 계층 갈등
11. 무질서
12. 군부
13. 영토분쟁
14. 엘리트 영향력
15. 민족주의
16. 혁명

(1) 정권교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의 권력승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특히,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투쟁은 흔히 정통성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권력승계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3세계 국가에서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상태는 해당국

International Businessmen, Totow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86, pp. 6-32, 참조.

가에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퇴임 또는 사망하고 권력을 승계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전 정권이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치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한 관계로 인해서 후계자의 자질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후계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성되기까지 해당국가의 권력에는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과거의 권력층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력과 관계를 생성해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권력공백의 과도기에는 흔히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과의 권력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정통성

첫 번째 정치적 위협도 변수가 제3세계에서 흔히 있는 독재자의 권력승계라는 1인을 둘러싼 문제라면,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정권자체의 형태, 절차, 제도 등 정부의 행위 및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운영되는 경우, 국민들은 은행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신용이 추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불만세력이 생성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

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물론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진출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미리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와 달리 정통성 위기는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부적절한 정부운영에 의해서 축적된 각종 부조리와 비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관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의 정통성 위기는 그 규모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대상국가의 정통성 위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사회변화 기대고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사회 및 경제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므로, 신분상승을 원하는 사회의 구성원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대단히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 즉, 제3세계 국가가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불안상태 발발 가능성이 낮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이 이룩되어 국민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높아진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국가의 정부는 그

잘못을 외부세계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기간산업 등을 다국적기업이 운용하고 있을 경우 다국적기업의 횡포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다대하다. 따라서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중산층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 및 고등교육을 마친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고 간주할 경우, 이들은 곧바로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들 중산층은 하층민과 달리 신분 및 소득을 높이려는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불만족은 큰 사회불안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대학생 등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계층도 자신들이 중산층으로 살아야 할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곧바로 데모 등 반정부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중산층은 통상적으로 사회의 안정세력이라고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산층은 사회불안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는 행동을 자제하고 관망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지만, 사회불안이 심화되어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중산층은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세력에 쉽게 동조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대상국가의 중산층이 현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5) 채무불이행 경험

대상국가가 채무불이행이나 국유화 등 다국적기업의 재산을 과거에 몰수한 적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행위는 국민들에게도 다국적기업의 재산을 국가가 국유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대상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보다 쉽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부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6) 부패

부패문제는 다국적기업의 정상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미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 정부의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시적 요인이 되며, 부패가 심각한 정도로 만연할 경우에는 정권의 유지 자체가 힘들게 된다. 사실상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부패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기능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보다 비판적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위험도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부패를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용인하는 부패의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7) 이데올로기

기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대략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근본주의 등이다. 여기에서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는 기업가들이 느끼는 그들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이데올로기의 구분보다 훨씬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경제운용 및 기업의 소유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빈곤을 퇴치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의료 및 치안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운용에 있어 사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정부의 정책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국방비 지출에는 관대한 반면, 사회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충에는 인색한 자세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 가족관계 및 가치를 중요시한다. 셋째, 사회주의는 모든 경제 및 사회주체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생산 및 분배를 장악하는 형태를 이상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넷째, 자본주의는 시장에 의한 자유경제를 지향하며, 정부의 행위는 사기업들이 담당할 수 없는 국방 및 치안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전체주의는 국가에 의해서 모든 정치적 권력이 독점적으로 소유 및 행사되는 것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여섯째,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의 결정과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은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주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이건 이슬람교이건 경전에 제시되어 있는 인간 및 사회의 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국가에서 활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정치적 위험도와 관련해서도 해당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정치의 안정·불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환경과 관련한 변수 중 대외관계 측면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대외정책이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거대한 흐름 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국제주의적 정책을 채택하는 대외관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를 고집하며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고 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일정한 편향성은 해당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며, 해당국가가 처해 있는 지역적 국제관계에 의해서 강요된 대외정책에 의한 편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국가가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경우, 정치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정치적 질서와 사회적 계층에 반대하는 그룹이 질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수불가결한 도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은 세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특히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기존질서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데올로기는 역시 맑스-레닌주의로서, 2차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지우지한 많은 혁명 및 사회적 불안정의 배후에는 공산주의 신봉세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가 위협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종교적인 것으로 과격 이슬람단체에 의해서 주장되는 근본주의가 대표적 예가 된다.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대상 국가가 공산주의나 근본주의적 신념에 의거한 과격한 종교단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경우, 국가위협도가 높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8) 인구분포

인구성장률과 인구분포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의 불안요소를 미리 판단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첫째, 실업률과 도시화는 직접적으로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업률의 증가는 곧바로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도시 빈민층이 양산됨으로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경을 통한 경제적 이민의 유입은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즉, 접경국가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음으로 해서 자국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인접국가로 탈출하게 되고,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해당국가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이후에 출산률의 증가로 인해서 청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취업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9)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과도하게 파업을 유발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국가의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국가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면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상국가에 대한 투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국가에서의 노동조합의 위상은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호전성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주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이다. 즉, 대상국가의 노동조합 조직이 단일화되어 있을 경우,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행동을 비교적 일찍 예측할 수 있으나, 대상국가의 노동조합 조직이 지나치게 분산화 및 분권화 되어 있다면,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의 방침이 해당국가의 경제운용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10) 계층 갈등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위협으로 느끼는 갈등은 문화적, 지역적, 전통·현대간에서 발생하는 격차이다. 지역적 갈등은 주로 대상국가의 수도와 지방간 격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일정지역간의 현저한 경제발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첫째, 제3세계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발전된 양식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지만, 지방에서는 낙후된 체제가 잔존하는 관계로 중앙의 명령체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앙과 지

방간 격차 문제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중앙의 경제운영원칙이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결정된 경제운영원칙이 지방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중앙에서 다국적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의 권력이 지방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제3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제3세계에 진출할 때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이다.

둘째,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 중의 하나는 지역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국경이 결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에는 별도의 생활을 영위하던 부족들이 인위적 국경에 의해서 합쳐지거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민족이 인위적 국경에 의해서 갈라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국경의 설정은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필연적으로 독립 이후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와 종족·부족간 갈등은 다국적기업이 대상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1) 무질서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 분석가는 대중에 의한 폭력이나 사회적 폭력 및 일반적인 무법상황 등의 발생가능성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무질서는 어느 국가에나 조금씩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3세계에서는 사회적 무질서 현상이 사회적 혁명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 하여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무질서 현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국가에서 사회적 무질서 현상 발생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빈도 수, 지역, 원인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무질서 현상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인권상황의 악화를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 셋째, 시위나 폭동을 주도하는 종교, 정치, 학생, 노동 관련 조직들의 활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무질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 또는 군대조직에 의해서 진압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도 점검대상이다. 다섯째, 사회적 무질서의 대상이 외국인들인가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일차적 관심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무질서 발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점은 발생 가능성 못지 않게 발생시점을 예상하는 것이다.

(12) 군부

쿠데타가 빈번한 국가가 불안정하다는 상식은 사실상 언제나 옳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의 빈도 수보다는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채택하는 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쿠데타 집권세력이 기업의 자유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기존의 다국적기업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권리를 존중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3세계에서 쿠데타로 집권하는 군부세력은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국적기업들에게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권세력이 과거의 집권세력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이 타도대상인 과

거 집권세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해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경우인 것이다.

(13) 영토분쟁

제3세계에서의 많은 영토분쟁은 주로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과거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할 당시 인위적으로 영토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현재의 정부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 대상국가 내에서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종족간 다툼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도시 및 전략적 요충지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또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천연자원 채굴 등의 사업은 되도록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14) 엘리트 영향력

대상국가의 정치적 안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의 영향력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희소한 제3세계에서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점검보다 대상국가의 엘리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세계 국가들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업관계 및 중앙과 지방관계 등에 대한 관념은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엘리트그룹을 하나의 조직으로 파악

하는 것보다는 그룹 차원에서의 주요 파벌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즉, 어느 파벌이 어느 다국적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지 등 현 장에서의 경험에 의거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5) 민족주의

제3세계에서 국가의 수립 및 건설 시기에는 민족주의가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민족주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국적기업으로서는 투자대상국가에 국수주의나 외국인에 대한 증오심 등이 존재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내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3세계에서 흔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인들에 의한 착취의 결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 희생양을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주의해야 할 것이다.

(16) 혁명

아마도 사회적 불안정 등 앞에서 논의한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은 혁명의 성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혁명의 성격과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첫째, 분석가는 혁명지도자들의 배경 및 세계관 등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혁명 지도자들 내에서의 파벌의 존재 및 파벌간 노선의 차이 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혁명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계속 보장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혁명에 대한 외부세력의 도움이 있을 경우, 외부세력과 혁명지도자간의 관계 및 외부세력의 성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2. 경제적 변수

사실상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협도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국적기업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경제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⁶⁾ 즉,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위협도와 관련해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때, 해당국가의 채무변제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적 변수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1. 경상수지
2. 부채비율
3. 외환보유고
4. 수출구성비
5. 통화경쟁력
6. 수입구성비

(1) 경상수지

해당국가의 경제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 일차적 지표는 경상수지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상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체수출의 10~20%인 경우에

6) Raddock, *op. cit.*, pp. 41-48, 참조.

는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분류되며, 20%이상인 경우에는 경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채비율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어, 국가경제 운용에 있어서 단기 및 장기 해외채무의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다국적기업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부채비율을 해외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수출의 비중으로 계산하며, 부채비율이 20~30% 정도인 경우에는 우려할 상황으로 분류하며, 30%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1년 이하 단기채무는 기산에 삼입하지 않지만 단기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외환보유고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외환보유고로서 금 보유,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에서 대상국가의 환율 및 외환보유 위치 등이 판단의 준거가 된다. 다국적기업들은 외환보유고를 전체수입액으로 나눈 지표(개월로 표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2~3 개월이면 우려할 상황, 2개월 미만이면 경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수출구성비

한 국가의 경제가 수출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면,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쉽게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 즉, 대상국가가 지나치게

적은 품목에 수출을 집중하고 있다면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출구성비는 각 상품의 집중도를 나타내며, 단일품목 집중도가 30~50%에 달할 경우에는 우려할 상황,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5) 통화경쟁력

통화경쟁력 지표는 인플레이션지수를 환율지수로 나눈 것으로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해당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동 지표가 1.3~1.5이면 우려할 상황, 1.5 이상이면 경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6) 수입구성비

현대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는 필수 수입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입구성비로 계산하여 위험도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지표가 25~35%이면 우려할 상황으로 35% 이상이면 경고대상으로 분류된다.

3. 일반적 변수

국가위험도 측정에는 상기한 관련변수들을 주로 사용하지만, 대상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의 일반적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상국가의 일반적 경제운용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주안점은 아니지만 국가위험도 관련

변수와 일반변수와의 차별화된 개념을 예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경제운용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각종 변수를 구분해서 예시하면 아래와 같은 일반변수를 알 수 있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일반변수는 상기한 관련변수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 및 경제적 관련변수들은 그 특성상 사회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분석가들에 의해서 수집된 기초변수들이 가공되어 사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앞에서 정치적 관련변수로 예시된 개념들은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서 아래의 일반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경제적 관련변수는 이러한 일반변수들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국내적 경제요인을 살펴보면 ① 인구나 소득(규모 및 배분, 성장률 및 일인당 국민소득, 인구성장률, 소득분배), ② 노동력과 고용(규모와 구성, 부문별 및 지역별 분포, 생산성, 인구이동 및 도시화), ③ 산업부문별 요인(농업과 자급력, 산업성장률과 분포, 공공부문의 성장률 및 규모, 전략적 추진산업부문), ④ 자연환경요인(천연자원, 기후 및 사회간접자본), ⑤ 정부재정 및 행정서비스(정부재정의 원천과 구조, 정부지출의 부문별 지역별 패턴, 재정적자의 규모 및 증가율,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⑥ 일반지표(물가, 임금, 이자율 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국제적 경제요인을 살펴보면 ① 대외무역(경상수지 및 구성, 수출입 가격안정도, 무역수지의 변화, 대외무역의 지역적 분포), ② 대외채무(절대적 및 상대적 대외채무, 채무변제의 조건과 상환기일),

7) Monti-Belkaoui, *op. cit.*, pp. 104-105, 참조.

③ 해외투자(규모 및 상대적 중요성, 부문별 분포, 지역별 및 지방별 분포), ④ 무역수지(외화보유수준, 외화보유 추세, 외화반출추세), ⑤ 일반지표(공식 및 비공식 환율, 국제채무변제조건 변동사항) 등이 있다.

셋째, 국내적 정치요인으로는 ① 인구분포(인종, 언어, 종교, 부족, 계급적 다양성, 경제 및 정치 권력간 상대적 배분, 이민), ② 문화(기본적 문화 가치 및 신념, 종교 및 도덕적 가치, 외부 및 현대적 영향으로부터의 소외감 정도), ③ 정부(헌법상 원칙, 국가기관의 결속력, 군부, 교회, 정당, 언론 등의 역할과 힘), ④ 권력(리더십의 배경과 태도, 현상유지의 주요 수혜층, 국내치안 담당기관의 역할과 힘), ⑤ 반대세력(힘, 지원세력, 효율성), ⑥ 일반지표(파업의 수준과 빈도, 폭동과 테러행위, 정치범의 숫자와 처우, 공직자 부정) 등이 있다.

넷째, 국제적 정치요인으로는 ① 동맹관계(국제적 조약 및 동맹, 국제적 사안에 대한 입장 및 UN에서의 투표성향), ② 금융지원(금융지원, 식량 및 군사지원, 차별적 무역관계), ③ 지역적 협력관계(국경분쟁, 군사적 위협, 게릴라 활동, 혁명 가능성), ④ 해외자본유지에 대한 태도(국가의 자본유치정책, 해외자본가에 대한 지역적 태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태도), ⑤ 일반지표(인권 기록, 반대세력의 망명정부, 제3국에서의 테러지원, 선진국과의 외교마찰) 등이 있다.

4. 국가위협도 측정결과지표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은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 정치적 위험도를 고려하게 된다. 즉, 다국적 기업들은 위와 같은 변수들을 기준으로 해당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변동사항을 예의주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 국가

적 위험도가 점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우선 순위는 주재국가의 화폐가 평가 절하되는 단순한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주재국가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가장 극단적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주재국가에서 즉시 철수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불리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내게 될 때에는 다국적기업들도 철수를 심각히 고려하게 된다. 반면, 정치적 요인들은 문제가 한가지 영역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철수까지를 고려하게 되는 보다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앞에서 살펴 본 각종 변수의 변화에 따라 아래 지표들이 국가위협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⁸⁾

1. 평가 절하 위험
2. 과실송금 제한
3. 수출제한
4. 생산 제한
5. 세제변화
6. 가격규제
7. 암시적 몰수 및 수용
8. 명시적 몰수 및 수용
9. 사회불안
10. 전쟁

우선적으로 평가 절하 위험(Devaluation Risk)은 주재국가의 화폐가 평가 절하될 경우에 본국으로의 송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

8) Monti-Belkaoui, *op. cit.*, pp. 83-86, 참조.

미하는 것이며, 주재국가의 무역적자는 주재국 정부로 하여금 화폐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주재국의 외환보유고 감소도 주재국정부로 하여금 평가절차 조치를 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과실송금 제한(Repatriation Limitations)은 다국적기업이 주재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재국가가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을 경우 주재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서 외화반출을 억제하려 하게 되는 한편, 주재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외기업이 취득한 이윤을 주재국에 재투자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셋째, 수출제한(Product Export Restrictions)은 주재국가가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경우와 다국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주재국가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외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넷째, 생산제한(Product Restrictions)은 다국적기업의 생산수준이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 정도까지 주재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는 주재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생산이 자국의 경제에 인플레이션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및 주재국의 노동 및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취해진다.

다섯째, 세제악화(Adverse Tax Changes)는 조세정책이 다국적기업이 당초 진출했을 시기 가정했던 이윤창출 수준을 악화시키는 조치로까지 발전할 경우이다. 주재국 정부가 쿠데타나 국내적 압력 등으로 인해서 조세정책을 급격히 바꿈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및 군사적 분쟁상태 발발로 인한 방위비 조달을 위

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가격규제(Domestic Price Controls)는 주재국정부가 다국적기업 생산품의 가격을 국제시세보다 낮은 상태로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재국정부는 국내적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국적기업 생산품 가격을 동결시키거나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다국적기업 생산품의 가격을 규제하기도 한다.

일곱째, 묵시적 몰수 및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은 주재국의 정부 또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100% 가까이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다음에 설명할 명시적 몰수 및 수용과 다른 점은 묵시적으로 하는 행위는 점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소유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덟째, 명시적 몰수 및 수용(Sudden Expropriation)은 주재국정부가 다국적기업을 정당한 대가 없이 몰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① 주재국의 이데올로기 변화로 인해서 주요산업의 다국적기업 소유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경우, ②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추방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 ③ 여타 제3세계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몰수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아홉째, 사회불안(Civil Disorder)은 사보타지, 폭동, 게릴라전 등 다국적기업의 시설이나 활동에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① 경제불안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최저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② 생활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③ 정상적 정권교체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정권교체시 혼란상황 야기, ④ 특정계층에 대한 억압형태의 장기화, ⑤ 정부의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⑥ 국내적 반대세력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지원, ⑦ 다국적기업의 모국에 대한 적대감 증대, ⑧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지나치게 착취하는 형태라고 인식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상태는 주재국이 외국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시설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는 주변국가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위협국가에 대해서 예방전쟁을 치르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IV. 대북한 적용변수 선정

1.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기준

북한은 독특한 형태의 경제 및 정치 운용방식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위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투자환경의 개선 및 후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중앙집권적 명령체제하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결과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다소나마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북한경제가 자생적으로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은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건국이후 사회주의권과의 유대강화를 외교의 주축으로 설정하고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온 결과, 서방권으로부터 도외시되어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들은 북한을 매력 있는 시장 내지는 투자대상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기업가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을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잠재력 있는 투자대상지로 간주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남한의 기업가들도 북

한의 위험성 및 고립성을 감안하고서도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역시 남한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이라 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는 국가위험도 관련 변수 선정은 쉽지 않은 작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한은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요인과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요인은 별도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요인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것과 경제외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기업은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근접성은 경제통합 이론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삼고 있는 바, 유럽통합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끼리의 경제협력은 상호간에 다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남한기업은 북한주민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고자 한다. 남한기업들은 남한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고임금 및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지 근로자들과의 언어소통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근로자들은 분단이후 언어의 이질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기업가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남한기업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근로자들은 자본주의적 관행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는 고급기술에 의한 생산라인을 운용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을 북한에서 운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기업에게는 매력 있는 투자대상지인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제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경제외적인 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요인과 남한정부의 대북경협 정책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구도 등 통상적인 기업의 고려사항을 넘어 서는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를 장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남한기업들은 남·북한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될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사실상 대북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및 북한이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사업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남한기업들이 초기에 북한지역에 진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점효과에 의한 대북한 투자요인은 북한이 위험도가 높다 하더라도 남한기업들에게 중·장기적

인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남한기업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북한 투자요인들 중 중요한 한가지는 기업의 이미지 고양이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 있을 경우, 남한기업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한의 대표적 기업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한 소비자들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한기업들이 고려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이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계개선과 악화를 거듭하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경협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남한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노력에 대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는 수동적 자세를 견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4대 경협 합의서가 합의되었으나, 실무협상의 단절 및 지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천이 미루어지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은 국제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의혹해소를 위한 북한과 미국간 줄다리기 상황은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한기업들은 북한정권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예의주시 하면서 대북한 투자를 준비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한기업들은 동북아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 구도의 향방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완성될 경우,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시장 및 유럽시장을 향한 육로가 열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개발과 북한지역 경유 가스관의 설치에 남한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는 남한기업들에게 또 다른 투자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자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국가위험도가 개선 또는 후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우,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으로 대표되는 개념 아래 남북경협 관련 합의의 이행상황,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 노력추이와 관련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협력 구도의 발전추세도 남한기업들에게는 관심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나.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요인

북한의 현 경제상황은 주지하다시피 저조한 공장가동률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폐쇄성과 미비한 투자보장 법제 등은 서방세계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매력 있는 시장으로 상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서방세계 각국의 외국 기업들은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북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대북한 투자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나름대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지대화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신의주에 경제특구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투자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견 상식적인 것이겠지만,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북한경제의 어떠한 점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대북 투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으며, 남한기업의 경우와 달리 외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은 경제적인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북한투자는 매력 있는 일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투자여건은 여타국가와 비교해서 볼 때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대북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단기적인 고려보다는 장기적인 고려를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의 경우,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신규시장에 진출할 때 동반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조건 아래 외국기업들이 대북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기적 차원에서의 시장선점 효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장기간 운용한 결과 모든 분야의 산업이 낙후되어 있지만, 인구규모나 지경학적 위치로 볼 때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경우에는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지역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입장에서 북한은 장기적 차원에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시장의 하나로 손꼽는 지역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한기업의 대북한 진출 및 이에 동반되는 남한자본의 대북한 유입이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온 바, 남한과 북한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냉전시대와 비교해서 본다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외국기업들은 남한과 북한간 경제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남북한간 경제관계 확대는 남한자본의 대북한 유입을 동반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한 지원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과거의 채무불이행과 경제운용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서 국제금융기구의 개발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국제금융기구의 대북한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만큼, 북한과 미국간 관계 개선 또는 후퇴는 외국기업들이 대북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넷째, 외국기업들은 북한과 일본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 지원으로 파생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과 일본간 수교교섭은 피랍 일본인 처리 문제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미해소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투자에 관심

있는 외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북·일 관계개선의 진전여부도 북한의 투자위험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다양한 외부의 자금유입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북한경제가 회생될 경우,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지역을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북한이 최근까지 추진한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를 개방해서 외국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한다면, 북한은 동북아지역에서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의 진출은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요인을 기준으로 할 때, 특히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자금 유입이라는 개념아래 북·미 관계개선, 북·일 관계개선 등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변수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또한 북한시장의 선점이라는 개념아래 대북 진출 해외기업 및 남한기업의 활동추세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투자요인 기준으로 선정된 변수들에 대하여 측정모델에서 제시할 인식표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의 변화상황을 추적하는 작업이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2.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기준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변수를 추출하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일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 또는 후퇴하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위험도 측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변수는 북한의 일반적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의 경상수지,

부채비율, 외환보유, 수출품목의 구성비율, 화폐의 경쟁력, 수입품목의 구성비율 등이 북한경제의 건전도를 측정하는 일차적 척도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안점인 북한의 정치적 위험도 측정과 관련해서 북한의 일반적 투자환경의 개선 또는 후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정권교체, 정권의 정통성 위기, 사회변화 기대, 중산층 불만족, 채무 불이행 역사적 경험, 부패, 이데올로기, 인구분포, 노사관계, 사회적 격차, 사회적 불안정, 군부의 불안정, 영토분쟁, 엘리트 영향력, 민족주의 성향, 사회혁명 등 국가위험도 측정의 정치적 변수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은 비중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기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치적 위험도 측정관련 중요변수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먼저 북한체제의 특성상 거의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제외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상기한 변수들 중에서 사회변화, 중산층 불만족, 노동조합, 계층 갈등, 영토분쟁, 민족주의, 혁명의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는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분류하면, 북한의 권력안정과 관련된 변수와 기업활동을 보장 또는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일반변수 중에서 경제적 요인관련 변수들을 분류하면 대외경제관계 변수와 채무변제 관련변수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한 국가위험도 측정은 상기한 점검표 접근방식을 통해서 일별 감시와 즉각적 기록 및 월별, 분기별 평가 등 세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위험도 측정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사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건발생 가능성, 시점, 위협도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시도된다.

V.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차적 과제는 관련변수의 추출이다. 이는 앞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대별되며,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 관련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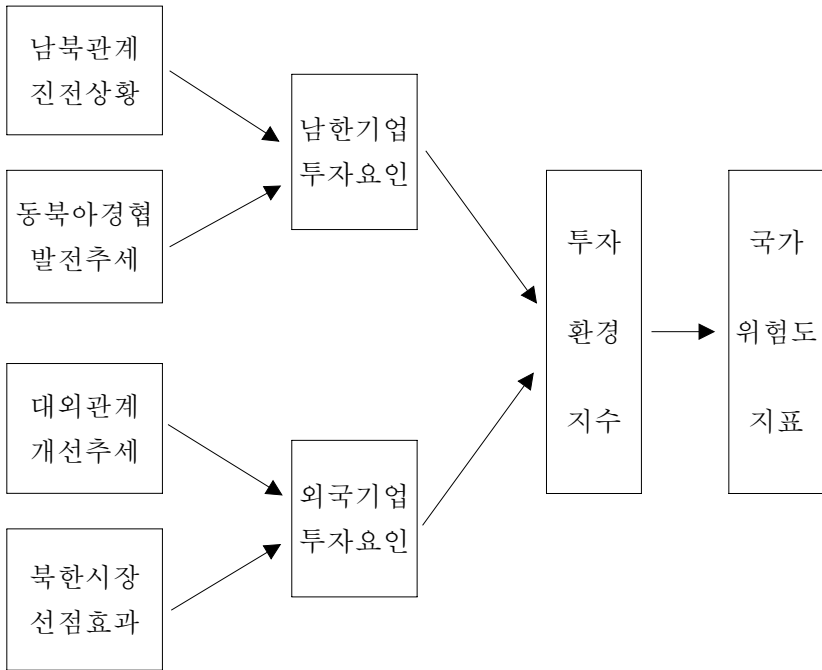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변수	남한기업 투자요인	남북관계 진전상황,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발전추세
	외국기업 투자요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추세, 북한시장 선점효과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변수	정치적 요인	권력안정 관련변수, 기업활동력안정 보장변수
	경제적 요인	대외경제 관계변수, 채무변제 관련변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점검표의 집계를 통한 방법과 객관화 방법이 있는 바, 관련변수들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은 객관화 접근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량화가 불가능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지수화 작업을 거쳐서 국가위협도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가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계열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국가위협도 지표는 대상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1. 북한특유 측정모델

우선적으로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변수들간 상관관계를 도표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인식의 흐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도표 1>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변수간 상관관계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과 관련한 특유의 변수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남북관계 진전상황, 동북아 경협 발전추세, 대외관계 개선추세, 북한시장 선점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변화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 또는 악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규정짓는 변수들은 남북경협 제도화, 남북연결 인프라구축, 전용공단 구체화 등으로서, 이들이 진전되는 경우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경협 관련 4대 합의서가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최근 남한과 북한간에는 경의선의 육로·철도 연결사업 및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로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성지역에 남한 전용공단을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투자환경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며, 국가위협도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동북아경협 발전추세는 동북아지역의 무역자유화와 한·중·일간 경협 강화로 대표되며, 이들이 발전되는 것도 북한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남한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대중국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동북아지역은 냉전이후시대에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인해서 한·중·일간 무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역동성은 역내국가들간의 다자간 경제협력 구도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경협 강화는 북한의 투자환경에도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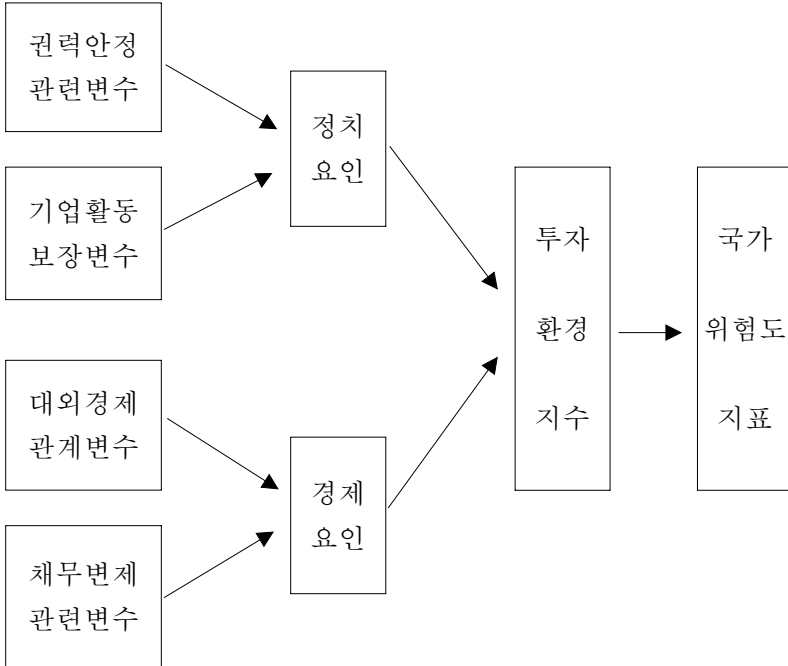
셋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추세는 북·미 관계를 필두로 해서, 북·일 관계 및 북한과 국제금융기구간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일본간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 지불은 북한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 기업들은 북한경제 현대화에 동참하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시장 선점효과는 북한당국이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방 및 개혁할 경우 강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적 요인은 역시 신규시장의 선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혁 및 개방조치를 취하게 되면, 외국기업들은 북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일반 측정모델

다음으로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변수들은 권력안정 관련변수, 기업활동 보장변수, 대외경제 관계변수, 채무변제 관련변수로 대별되는 바,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 또는 악화될 것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투자환경지수가 국가위험도 지표에 반영된다.

<도표 2>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변수간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들 정치적 요인을 대별하면, 권력의 안정과 불안정을 가늠하는 변수들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가 제한하는가 하는 점을 측정하는 변수들로 나뉘어진다. 첫째, 권력안정 관련변수로는 정권교체 가능성, 정통성 위기발생 가능성, 사회적 무질서 양상, 군부의 불안정, 엘리트 영향력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된다. 즉, 다국적기업이 대상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문제가 대상국가의 권력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측정하는 변수가 상기한 것들이다. 사실상 대상국가의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 보장변수로는 채무불이행 경험, 부패의 정도, 이데올로기, 인구분포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된다.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두 번째 사항은 대상국가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활동 보장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제반장치가 매우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 나름대로 시장경제의 장점을 받아들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일반적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경제적으로 요인을 고려하면, 대외경제관계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변수와 채무변제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나뉘어진다. 셋째, 대외경제관계 변수로서는 경제적 변수 중에서 경상수지, 수출구성비, 수입구성비가 해당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상국가의 수출이나 수입이 지나치게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국가의 경제는 일정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수입과 수출간 비중이 불균형한 현상도 대외경제관계를 의존적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채무변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는 부채비율 및 외환보유고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외환위기 당시 지나친 외채 때문에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한 바 있으며, 북한도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

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3. 종합모델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모델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투자요인을 중심으로 추출한 특유모델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이 2가지 모델은 아래와 같은 점검표로 통합될 수 있다.

<표 2> 통합점검표

기초변수		투자환경지수	국가위험도지표
북한일반 투자환경 개선변수	정치요인	권력안정성	
		기업활동 자유보장	
	경제요인	대외경제관계 건전성	
		채무변제능력	
북한특유 투자환경 개선변수	남한기업 투자요인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경협발전	
	외국기업 투자요인	대외관계 개선	
		북한시장 선점효과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가는 제시된 통합점검표를 각 변수의 변화를 추적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국가위협도는 일견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은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절대적 수치로 평가한 결과보다는 시계열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적 정치 및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점진적이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가 더 효과적인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 모델은 국가위협도 측정 관련 일반변수와 북한특유 변수들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이며, 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북한의 국가위협도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예측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은 북한경제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위에서 제시된 통합된 모델을 바탕으로 협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평가 및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인 국가위협도 측정의 이전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바

탕으로 먼저, 대상시기를 1994년과 2000년의 두 시점으로 설정하고, 다음으로 실제 이 시기의 북한 국가위험도를 위에 제시한 통합점검표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의 북한상황을 반영하여 상기의 점검표에 따라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일반적 투자환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 중 권력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이 있었고, 다국적기업 활동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보면, 당시 북한의 미흡한 개방조치로 인해서 경제특구에서조차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을 대표적으로 상기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 중 대외경제관계 건전성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당시 구사회주의권과의 경제관계는 악화되고 서방권과는 경제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채무변제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경제 전반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외화난으로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할 수 없었다.

한편, 북한특유의 투자환경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기업 투자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서 경색된 상황이었으며, 동북아 경험발전의 측면만이 북한의 상황과 달리 중국의 개혁, 개방 가속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기업 투자요인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극히 소수의 외국기업을 제외한 다국적기업들은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둘째, 2000년의 북한상황을 통합점검표를 통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일반적 투자환경 개선변수 중 정치요인을 보면, 권력안정성의 측면에서 김정일 정권이 공고화된 상황이므로 매우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의 보장측면에서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이후 취한 다양한 개방조치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요인 중 대외경제관계 건전성 변수를 살펴보면, 북한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및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변제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정상적 무역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경제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특유의 투자환경 개선변수 중 남한기업 투자요인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2000년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도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힘입어 크게 진전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 투자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2000년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투자환경의 개선과 함께 외국기업들도 북한을 잠재적 시장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북한의 투자환경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에 진입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에 진행된 미국과의 대립관계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변수들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서 개선된 측면이 상쇄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

의 1994년 국가위협도와 2000년 국가위협도를 비교해서 보면 2000년의 국가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대두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로 인해서 최근에는 북한의 국가위협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는 김정일이 정권을 세습한 이후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할 수 있으나, 최근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위협도 측정변수 중 하나로 설정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변수가 북한의 전반적 국가위협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반면, 결정적인 변수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석삼. 「기계설비 이전에 의한 대북투자의 제조업종별 유효성 분석」. 서울: 한국은행 조사국, 1999.
- 신희선.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98.
- 양운철 편.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대전: 충남대학교, 1999.
- 이동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경제난과 선택: 대북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 장형수 · 이창재 · 박영근.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조명철 · 홍익표.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Aizenman, Joshua and Nancy Marion. *Volatility, Investment and Disappointment Aversion*.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5.
- Belgini, Norman A. *A Global Risk Management: How U S International Corporations Manage Foreign Risks*. New York: Risk Management Society Publishing, 1983.

- Brunetti, Aymo and Beatrice Weder.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Uncertainty Measure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997.
- Dixit, Avinash and Robert Pindyck.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onti-Belkaoui, Janice and Ahmed Riahi-Belkaoui, *The Nature, Estimation, and Management of Political Risk*. Westport: Quorum Books, 1998.
- Nagy, Pancras J. *Country Risk: How to assess, quantify and monitor it*. London: Pitman Press, 1979.
- Oseghale, Braimoh D. *Political Instability, Interstate Conflict, Adverse Changes in Host Government Polic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3.
- Raddock, David M. *Assessing Corporate Political Risk: A Guide for International Businessmen*. Totow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86.